

석사학위논문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수준의 관계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8년

한 성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상 담 심 리 전 공

이 민 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난숙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수준의 관계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Selfobject Experience and Object relation
A level relationship
Based on the numerical effects of shame

2017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 담 심 리 전 공

이 민 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난숙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수준의 관계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Selfobject Experience and Object relation

A level relationship

Based on the numerical effects of shame

위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 담 심 리 전 공

이 민 정

이민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수준의 관계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상 담 심 리 전 공
이 민 정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주변 사람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가고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를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지지기반이자
배움의 터전이 된다. 코헛의 자기심리학에서는 자신의 내재화된 대상에 의
해(자기대상경험) 대상관계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
기대상 경험의 현재에 대상관계수준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그 상관성과 수치심
을 매개한 경험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경기도의 거주하는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한 자료
의 통계분석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신뢰도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연구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대상경험, 대상관계, 수치심에서 평균차이를 확인
하고,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s correlation)로 자기대상경험, 대상관계, 수
치심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의 관계에서 수

치심의 매개효과(mediator effect)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기대상경험에서는 쌍둥이 자기대상경험($t=-3.097, p<.01$)과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t=-2.320, p<.05$)에서 여성($3.79\pm.70$)이 남성($3.42\pm.65$)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사하게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의 경우에도 여성($3.43\pm.69$)이 남성($3.16\pm.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변인은 자기대상경험에서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t=-2.923, p<.01$)만이 여성($3.52\pm.64$)이 남성($3.24\pm.67$)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에 따른 자기대상경험의 결과는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F=3.379, p<.05$)에서 20대의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 수준이 가장 높았고($3.88\pm.52$), 40대($3.76\pm.63$), 30대($3.69\pm.75$), 50대($3.32\pm.94$)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관계의 하위척도 소외에서는 50대 이상이 30대 이상에 비해 소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 수준, 수치심의 상관관계는 자기대상경험 높은 경우 대상관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대상경험 전체는 수치심 전체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69, p<.01$). 즉 자기대상경험 수준이 높은 연구대상자는 수치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대상관계 전체와 수치심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positive)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600, p<.01$).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연구대상자는 수치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으로는 확인요인분석을 거쳐 구조모형검증 효과 분해 및 간접효과의 검증을 통해 자기대상경험은 직접적으로 대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수치심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기대상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수치심은 감소하고, 낮아진 수치심은 다시 대상관계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자기대상관계와 대상관계수준의 상관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사이에 수치심이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경기지역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변인측정의 제한이 있을 수 있

다. 또한 수치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의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주요어】 : 자기대상, 대상관계, 수치심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용어의 정의	4
1.2.1 대상관계	4
1.2.2 자기대상경험	4
1.2.3 수치심	5
1.3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2.1. 대상관계	7
2.1.1 대상과 대상관계	7
2.1.2 대상관계이론의 선행연구	9
2.2 자기대상경험	10
2.2.1 자기대상	10
2.2.2 자기대상경험	12
2.2.3 자기대상경험의 선행연구	13
2.3 수치심	15
2.3.1 수치심	15
2.3.2 수치심의 선행연구	18
2.3.3 자기대상경험-수치심, 자기대상경험-대상관계수준, 수치심-대상관계수준에 관한 선행연구	19
III. 연구방법	21
3.1 연구대상	21
3.2 측정도구	21
3.2.1 자기대상경험	21
3.2.2 대상관계	22
3.2.3 수치심	24

3.3 자료분석	26
IV. 결 과	27
4.1 연구대상자 및 기초통계	27
4.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4.1.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일변량 정규성 검토	28
4.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31
4.2.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31
4.2.2 연구대상자의 종교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33
4.2.3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35
4.3 자기대상경험, 대상관계, 수치심간의 상관관계	41
4.3.1 연구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42
4.3.2 주요변수와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44
4.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45
4.4.1 확인요인분석	45
4.4.2 구조모형 검증	48
4.4.3 효과의 분해 및 간접효과의 검증	51
V. 논 의	53
참 고 문 헌	56
부 록	62
ABSTRACT	71

표 목 차

[표 3-1] 자기대상경험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2
[표 3-2] 대상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4
[표 3-3] 수치심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5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
[표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30
[표 4-3]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32
[표 4-4] 연구대상자의 종교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34
[표 4-5]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자기대상경험의 차이	36
[표 4-6]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대상관계의 차이	38
[표 4-7]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수치심의 차이	40
[표 4-8] 자기대상경험, 대상관계, 수치심 간의 상관관계	41
[표 4-9] 확인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47
[표 4-10]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	47
[표 4-11] 내포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비교	50
[표 4-12] Wald 검정의 적합도 지수 및 비교	50
[표 4-13] 최종모형(경쟁모형)의 경로계수	50
[표 4-14]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Sobel test	51

그림 목 차

[그림 4-1] 잠재변수의 확인요인분석	46
[그림 4-2]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검증결과(표준화 λ , γ , β)	48
[그림 4-3] 경쟁모형의 구조모형 검증결과(표준화 λ , γ , β)	49
[그림 4-4]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52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다른 주변 사람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 불신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면 거부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호막을 치고 살아간다. 이런 이들에게 대인관계는 심리적 불편감과 갈등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원이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우호적 존재로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가 신뢰 롭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고, 삶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하며, 각각 개인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지지기반이자 배움의 터전이 된다. 이처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대하며, 어떤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가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특성에 의해서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대인관계 경험이나, 지각수준, 욕구, 기대,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김진숙, 2001).

이렇듯 대인관계가 내재화된 대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성립된 이론이 대상관계이론이다. 대상관계 학자들은 유아가 기억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애정을 받았다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부적절한 양육과 좌절을 안겨주는 불안정한 관계였다면 부정적 표상이 형성되게 되어 자아손상 및 차후 정신병리 발달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김순진, 1998).

한편, 자기심리학의 창시자 코헷에 의하면, 초기 자기대상(self object)은 자기와 대상 사이에 하이픈(-)을 첨가한 것으로 자기-대상(self-object)으로 시작되었다(최영민, 2010 재인용). 그러나 1978년 코헷은 자기대상

(selfobject)으로 자기와 자기대상 사이의 하이픈을 제거하여 사용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능을 제공하는 대상이 자기와는 별개의 대상으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코헛은 건강한 자기야 말로 자기와 자기대상의 질적 관계에 달려 있다고 설명 하였다. 이는 아기가 태어나 최초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질적 관계에 따라 자기의 응집성(cohesiveness)이 결정됨을 말한다. 특히나 자기 대상으로의 양육자가 긍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에 병리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기(self)는 파편화되고 연약한 자기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1차 양육자의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공감적 이해는 자기대상경험인 이상화, 반영, 동일시 경험을 통하여 자기를 공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코헛에 따르면 긍정적인 공감을 제공하는 자기대상만이 진정한 자기대상이라고 말한다(박은정, 2013). 또한 이 자기 대상은 생애 초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 환경이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인간이 탄생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전 생애에 걸쳐 긍정적인 자기대상의 역할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대상경험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건강하고 응집된 자기를 구축하여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 자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핍이 발달과정에 결함을 갖게 된다. 응집되지 못하고 파편화된 자기는 건강한 대상관계를 갖는 데에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와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의 연관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생애에 걸쳐 심리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기대상 경험이 현재에 대상관계에 어떤 관련을 갖는지 그 상관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 하다.수치심이 대상관계 경험에 따라 형성되는 중요한 정서적 경험의 하나이며(Kaufman, 1989; Celani, 1994; Winnicott, 2004; Kohut, 2000), 코헛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반영과 정서적 조율이 제공되지 않으면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욕구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어 병리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이인숙, 최해림, 2005). 이처럼 자기심리학에서 설

명하고 있는 수치심은 자기대상이 적절히 기능 하지 못해 결핍된 자기대상 경험에서 비롯하여 나타난 것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하는 감정을 의미한다(최서현, 2016). 게다가 초기의 자기대상경험이 채워질 기회가 없을 경우, 수치심도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내면화되어 또 다른 수치 경험을 회피 하려하기 때문에 더욱 수치심에 취약한 자아가 된다고 보았다(코헛, 1972).

충족되지 않은 자기대상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진다는 하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자기대상경험은 수치심을 통해 심리내적 상태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으나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외로움, 우울, 고립감, 자기비난, 자기 분리, 완벽주의, 실패, 열등감, 좌절 등의 많은 심리내적 상태들과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수치심은 정서적 핵심 감정이다. 상담현장에서 초기의 자기대상 경험 자체를 다룰 수는 없어도 이 수치심을 줄일 수 있다면 보다 바람직한 대상관계를 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에서 연구를 출발한다. 따라서 수치심이 자기대상 경험과 대상관계에 어떤 매개효과를 보이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대상관계를 형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서 자기심리학에서 제시한 개념인 자기대상경험이 현재의 대상관계와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지,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상관계와 자기대상경험의 상관성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하고자 하며, 동시에 핵심감정인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건강한 대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기대상경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자기대상경험을 위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2 용의의 정의

1.2.1 대상관계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은 사람들이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대인관계경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상을 어떻게 형성하고 이런 내면화된 표상들이 개인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이론이다(Kernberg, 1975; Clair, 1986; 남영옥, 2001 재인용). Bell, Billington과 Becker(1986)가 개발한 OR-Inventory척도에서는 대상관계를 불안정 애착과 사회적 무능력, 소외 그리고 자아 중심성으로 정의한다.

불안정 애착은 타인에 대한 인정과 사랑에 지나치게 집착하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사회적 무능력은 이성애에 대한 부끄러움, 친구관계에서 친밀함을 느끼는 것에 관한 어려움을 의미한다. 소외는 타인에 대해 의심과 신뢰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자아중심성은 타인이 나를 위해 존재하며, 타인은 나의 목표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신념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관계를 불안정 애착과 사회적 무능력, 소외, 자아중심성으로 정의한다.

1.2.2 자기대상경험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반응해 주는 타인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며, 타인의 경험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느껴야 타인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타인을 자기대상이라 한다(Kohut, 1977). 객관적으로는 대상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대상에 대한 심리내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대상경험이라 정의한다.

1.2.3 수치심

사전적인 수치심(shame)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국립국어연구원, 1999)이다. 또한 수치심은 ‘숨기다’(to cover)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Jacoby, 1991). 심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감정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정서이며, 작게 줄어든 느낌, 무가치, 무기력감,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대인관계로부터 회피하려는 정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정체성의 발달에서 중심에 있고, 내면의 고통(torment)이며 소멸되는(diminishing) 감각, 내적 자기(inner self)를 드러내는 자기의 의식적인 정서라는 조작적 (operational) 정의를 취한다.

1.3 연구문제

대상관계는 인지적-정서적 콤플렉스로 개인에게 특정한 인지와 정서, 행동 양식을 촉발시키고(Stadter, 1996), 개인이 외부 세계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본방식을 결정하는 심리내적 구조로 기능하게 된다(Horner, 1984). 대상관계의 어떤 부분은 개인이 의식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개인의 의식밖에 있으며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생애 초기에 형성된 대상관계는 이후 자기대상경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병리적 상황에서는 대상관계가 경직되게 구조화되어 이후 대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저해한다(Stadter,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한 대상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 자기심리학에서 제시된 개념인 자기대상경험이 현재의 대상관계와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지,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 수치심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인가?

연구문제 2.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에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Ⅱ. 이론적 배경

2.1 대상관계

2.1.1 대상관계

대상관계는 실제 관계와는 구별되며(윤순임, 1995) 생애 초기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이 어떤 정신적 표상과 자기-타자 상호작용의 틀로 내면화된 것을 뜻한다(김진숙, 2001). 대상관계는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연결해 주는 정서상태로 구성할 수 있는데, 표상이란 자신과 대상에 대해 같을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상으로 객관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한 바를 나타낸다(장진아, 2006). 즉 대상관계에서 ‘대상’이란 인간이 본능적으로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그 관계를 추구하는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말하며 대상관계란 실제의 사람보다도 내면화된 사람의 표상을 의미한다(김병석, 1999).

생애 초기에 유아는 어머니로 대표되는 양육자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대상과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수반되는 정서상태까지도 내면화하여 대상 표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대상표상이란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사고만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여러 기억과 감각, 정서, 기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이민경, 2009). 또한 유아의 내면 세계에는 대상에 대한 표상과 자기에 대한 표상도 함께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주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통한 여러 가지 경험을 내면화된 자기에 대한 기억, 감각, 지각, 정서, 기대 등을 포함한다. 즉 자기에 대한 지각이 없는 신생아가 양육자와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적 양식과 정서적 반응양식을 형성하게 된다(장연신, 2009).

이때 유아를 잘 양육하고, 정서적 보살핌을 제공하면 유아는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경험될 때 이를 기억하고 이 기억들이 반복되어 유아에게 양육자에 대한 표상으로 내재화된다고(이영미, 2016). 반대로 타인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다양한 경험과 기억이 축적되면 이것이 주 양육자에 대한 표상으로 내재화된다고(장진아, 2006). 자기 표상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양육자와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김미영, 2009). 이렇게 내면화된 여러 내적 표상은 유아가 자라면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할 때 어떤 틀 혹은 여과기로 작용하여 미래의 대인관계 패턴으로 형성되고 개인의 성격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대상관계이론은 출생 시부터 인간이 대상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본 욕구로 보고 이 과정에서 상실감을 경험하고 다른 이상적 대상을 찾지 못한 채, 그 상실된 대상을 내면화하여 우울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이정림, 2011).

대상관계에서는 함입(incorporation), 내사(introjection),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세 가지의 방어기제 나누어지는데, 이는 자신과 대상이 분열되는 정도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Hamilton, 1988). 우선, 함입은 자기와 대상간의 경계가 흐려져, 대상과의 여러 경험과 특성들이 그대로 내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최정숙, 2017). 내사란 함입에서 좀 더 분화되어, 대상의 그 특성들이 대상 그 자체로 보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긍정적으로 내사된 대상은 자신의 자존감과 신뢰감의 근원이 되지만, 이와 반대로 부정적으로 내사될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 동일시란 대상의 일부분 즉, 내사된 대상의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기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신의 뜻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것이 투사적 동일시이다(김창대, 1997; 김사훈, 1998; Collins & Read, 1990).

대상관계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분열(Splitting)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있다. 유아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어머니의 태도에 의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으로 분열 시킨다(김진숙, 2007). 이러한 구분은 어머니 혹은 주 양육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 질수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어머니의 칭찬이나 관심을 받은 부분이며, 반대로 어머니로부터 받는 거부나 혹은 처벌 등의 경험

은 부정적인 부분이 된다. 따라서 이때에 유아의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면세계의 어느 한 부분으로만 지나치게 고착되지 않으며 건강한 자아로 통합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innicott(1971)은 충분히 좋은 엄마를 유아에게 일관성 있는 보듬어주기(holding)를 통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그 환경을 제공해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1.2 대상관계이론의 선행연구

국내에서도 대상관계이론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상관계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순진, 1998; 박경순, 1997; 박효서, 1999; 전희정, 1999). 대상관계를 주제로 한 최근 국내 연구는 주로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아동 혹은 청소년의 정서적 특질에 관한 연구들(박수진, 2004; 윤중권, 2003; 심윤정, 2000; 김병석, 1999)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연구들에 서는 일관되게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이 양육태도를 결정하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서와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다(장연신, 2009). 또한 우울과 대상관계(박부형, 2000), 자아방어기제 및 자아분화수준과 대상관계(문성호, 2001), 공감 능력과 대상관계(김사훈, 1998; 박정선, 2001), 공격성과 대상관계(김윤화, 2003; 임영철, 2003; 이정혜, 2004), 작업동맹과 대상관계(김순진, 1998; 임현지, 2001)의 연구들에서는 대상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고 공감 능력이 높으며 공격성이 낮고 작업동맹이 잘 맺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 양육자의 대상관계의 질과 개인의 성격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또한 개인의 대상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그 개인의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에도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이민경, 2009).

2.2 자기대상경험

2.2.1 자기대상

자기대상은 코헛 자기심리학의 핵심개념이다. 존경, 총애 그리고 일체의 역동적 정서체험으로서 자기대상은 개인의 삶의 질을 새롭게 해준다(강영순, 2011). 인간은 존경과 총애, 그리고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풍요로움을 느낀다. 자기와 자기대상관계는 정신적산소로 역할을 한다. 정신적 산소는 인간을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윤택하게 한다. 인간관계란 홀로서기가 아니라 성숙한 연대감을 추구한다. 코헛이 이야기하는 초기 자기대상(selfobject)은 자기와 대상 사이에 하이픈(-)을 첨가한 것으로, 자기-대상(self-object)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8년 코헛은 수정하여 자기와 자기대상 사이의 하이픈을 제거하고, 자기대상(selfobject)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기능을 제공하는 대상이 자기와는 별개의 대상으로 경험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자기-대상(self-object)을 자기대상(self object)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기대상에 대해 코헛은 유아의 신체적 생존을 위해서 적절한 산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출생하는 것과 같이, 정신적 생존을 위해서 공감적인 환경 속에서 출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유아의 호흡에 요구하는 것에 따라 공기 중의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공감적인 환경 또한 유아의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반응해 줘야 함을 말하였다. 자기대상은 본디 유아의 심리적 기능들을 충족시켜 주는 양육자이다. 이 때 자기대상은 특정한 개인으로 인지되지 않고, 수행기능의 시각에서 경험된다(박은정, 2013).

여기서 유아는 양육자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 혹은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기능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그 대상은 특별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와 관련성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유아가 성장했을 때 본인의 정신구조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기능을 현재 자신을 대신하여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을 자기대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기대상은 유아의 욕구에 공감적으로 반응해 줌으로써 자기

가 점차적으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해 준다. 이것은 응집적이며 조화로운 자기 발달을 위하여 자기에적 욕구에 대해 적합하게 반응해야 하는 세 가지 자기대상이 요구된다. 이는 각각의 자기에적 욕구에 대해 각각의 자기대상이 긍정적이며 절적하게 반응해야 자기가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과대자기라는 자기에적 욕구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긍정해주는 거울반응, 즉 거울자기대상(mirroring)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쌍둥이 자기에적 욕구로 공통의 연대감으로 욕구에 대해 우리는 하나라고 반응해주는 쌍둥이 자기대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상화 부모 이마고의 자기에적 욕구로서 능력이 뛰어나고 강인하면서 자기를 안정시켜주는 대상과 통합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용하는 이상화 자기대상이 있다(박은정, 2013).

자기대상은 한 인간의 특별한 존재이다. 그 대상은 무조건 좋은 대상이 되고 해로운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 나의 존재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되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싱그러움을 주는 아름다운 대상이 된다. 자기와 자기대상의 관계에서는 개인에게 있어 마음의 생명줄이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혈액순환을 책임지는 신경계의 꼭 필요한 중심라고 할 수 있다. 신경계의 건강함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신체의 기능과 영향력을 증대시키듯이 자기대상관계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강건한 유익함을 끼치도록 도와준다(박은정, 2013).

때문에 코헛은 자기 자기대상관계를 가리켜 “정신적 산소”의 경험, “정신적 영양섭취”의 기쁨이라고 설명 하였다. 자기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자기대상은 개체가 타인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경험하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자기대상은 자기의 조화, 힘 그리고 응집을 지지해 주며 심리적 기능을 대신해 준다(Kohut, 1984).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타인이 있어야 자신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경험해야 타인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송가영, 2014). 여기서 타인을 자기대상이라 한다(Kohut, 1977). 자기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대상은 타인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경험하는 현상을 이야기 하는데, 자기대상은 자기의 힘, 조화, 응집을 지지해 주며 심리적 기능을 대신하여 준다(Kohut, 1971, 1977, 1984).

2.2.2 자기대상경험

자기대상경험은 대상뿐만 아니라 대상을 상징하는 생각이나 상징물들로도 가능하여 자기도 대상도 아닌, 관계를 통해서 수행되는 기능의 주관적인 면모라고 말할 수 있다(Wolf, 1988). 이처럼 자기대상경험은 객관적으로는 대상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대상과의 심리내적 경험을 의미하며, 자기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 평생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냈다(김병훈, 2002; 최의현, 2001). 따라서 자기대상경험은 생애초기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적절히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최서현, 2016). 또한 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만날 수 있는 교사나 멘토, 성인기에 만날 수 있는 연인, 배우자, 동료, 선배, 직장 상사 혹은 상담자나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다고 본다(홍이화, 2011).

코헛(Kohut, 1971)에 의하면, 자기에는 인간의 고유한 본성에 속한 속성으로 인간이 아무리 성숙한 존재가 된다고 해도 지속되며 자기가 발달함으로써 건강한 자존감의 토대를 형성하고 타자들과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이재훈, 1999, 재인용). 또한, 이러한 자기가 형성되고 발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서 세 가지의 특별한 자기대상경험이 제시된다. 첫째, 반영적 자기대상경험은 유아의 활기와 위대함 그리고 완벽함에 대한 내적 감각에 반응해주고 그것을 확증해주며, 기쁨과 찬성의 눈빛으로 그를 보아주고 유아의 과대적인 마음상태를 인정해주는 자기대상과의 경험이다(최서현, 2016). 둘째, 이상화 자기대상경험은 유아가 존경할 수 있고, 더불어 평온하고 절대적이고 완벽하여 전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타인과의 여러 관계경험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아이들과 그들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일체 자기대상경험들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Kohut, 1977).

또한, 자기대상이 개인적 차원이냐, 집단적 차원이냐에 따라 개인적 자기대상이나 집단적 자기대상을 구분한다(김갑성, 2007; Kim, 2001). 개인적 자기대상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고, 집단적 자기대상은 집단적 차원에서의 자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

신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 즉, 자기대상경험은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김갑성, 2007). 더욱이, 유아기 원초적 자기대상 경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간은 평생 자기대상이 필요하며 그 자기대상경험의 형태는 성숙되고 발전된다고 하였다(Kohut, 1977). 예를 들면,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신체적 접촉이나 스킨십에 대한 필요보다 소설을 읽거나 그림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좀더 성숙한 자기대상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박상희, 2011). 성숙한 인간에게는 이러한 상징적 자기대상경험이 유아 때의 자기대상경험의 필요를 대신하게 되고, 종교적인 경험들, 집단 경험들,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통찰들도 성인의 자기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능으로서 자기대상경험이 될 수 있다(Wolf, 1988). 또한, 성숙한 자기대상경험과 원초적 자기대상경험이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둘이 분리된 것은 아니며 성인이 성숙하게 선택한 자기대상의 자기-지지 효과를 경험할 때 거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전의 모든 자기대상경험이 연결되게 된다(Kohut, 1977). 예를 들어, 우리의 어떤 문화적 성취로 인하여 고양되는 감정을 경험할 때, 그 안에 과거에 강하고 존경스런 엄마로 인해 자신이 높여졌었던 경험과 엄마의 위대한 안정감과 융합되었던 경험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대상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적절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긍정적인 구조를 갖게 되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구축하는 과정에 결핍이 생겨 발달과정에 결함을 갖게 된다고 코헷(Kohut, 1984)은 말한다.

2.2.3 자기대상경험의 선행연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기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자기대상경험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논문은 몇 편에 불과하다. 목회상담에서 문헌 연구들(김병훈, 2004; 박상희, 2001; 홍이화, 2009)과 소수의 경험적 연구(김갑성, 2007; 김복미, 2010; 김은혜; 2014; 조난숙, 2013)이 있다.

현재 자기대상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기대상경험에 관한 포괄적 선행연구로 ‘자기대상경험을 통한 역기능적 하나님 표

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박상희, 2011),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을 중심으로’(박재성, 2011), ‘어머니의 자기대상욕구와 양육 효능감 및 자녀의 대인관계’(이서경, 2010),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의 가족 치료적 적용’(최명덕, 2008), ‘진로 미결정과 애착, 자기대상욕구의 관계’(김미자, 2008), ‘내담자의 자기대상욕구와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관계’(김미자, 2009)등이 있다. 위 연구들은 자기대상의 재 경험으로 인한 하나님 표상의 수정, 자기대상욕구를 통한 부모-자녀관계 회복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의 치유, 가족체계 내에서 자기대상기능으로 인한 치료적 효과,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자기대상 기능으로 인한 내담자의 변화, 부모의 자기대상욕구와 양육 효능감 및 자녀의 대인관계 등의 결과를 보고하였다(이계선, 2013). 이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자기대상경험이 한 사람의 정서적, 심리적 생존에 관한 중요한 요인이 되며, 자기대상의 기능으로 인하여 치료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이계선, 2013).

요약하면, 생애 초기에 유아는 어머니 혹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공감과 반영의 충족과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여 자기구조를 확립하고 건강한 자기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공감과 적절한 반영의 실패로 인하여 심각한 좌절경험이 외상이 되어 자기구조가 결핍되면 자기대상 욕구갈망이나 자기대상욕구회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이계선, 2013). 이는 유아의 자기 초기 성장과정에서의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심리적 중심구조로 형성되며 그리고 이후의 삶속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수치심

2.3.1 수치심

수치심은 개인의 행동이 아닌 ‘총체적인 자기를 검토한 결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정적이고,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작다고 느끼는 것으로, 전체 자기가 문제시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Kaufman, 1989; Lewis, 1971; Tangney et al, 1992). 수치심은 자존감과도 유사한 개념이지만, 자존감보다 더 정서적 개념이다(장진아, 2006). Yontef(1991)는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 정서이자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적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수치심은 또한 우울, 외로움, 자기비난, 고립감, 자기분리(self splitting), 완벽주의, 열등감, 실패, 좌절, 자기에 장애등 많은 내적 상태들과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정서이다(Wheeler, 2000). 즉, 이런 많은 병리적, 정서적 현상들의 기저에는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나영, 2004). 수치심은 그 자체가 병리적 정서는 아니지만 부정적 정서로 인식되어 모호하게 다루어져왔다.

이처럼 수치심의 모호함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치심이 다른 많은 정서들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분노 등 여러 다른 정서의 모습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Greenberg, 2002). 또 한편으로는 수치심에 직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일 수 있으며 한 개인에게는 충분히 위험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그동안 수치심은 다른 정서에 비하여 비밀스럽게 다루어져 왔다(고나영, 2004 재인용). 수치심 이론을 살펴보면, Erickson(1963, 1968)은 수치심을 자기 통제와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향문기에 생기는 특징적인 감정으로 보았다. 자신의 배설기능 조절이 안 되어 자율성과 성취감에 손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능력을 회의하게 되는 데, 여기서 느끼는 향문기의 특징적 정서가 수치심 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치심의 정신내적 입장을 강조한 Piers와 Singer(1953)은 수치심은 자아 이상(ego ideal)과 자아(ego)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자아 이상의 기대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김현주, 2008). 따라서 수치심은 자신의 부족한 결점과 관련하여 생기는 정서로서, 실패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핍상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버려짐”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수치심이 야기된다(박윤선, 2008) 따라서, 이에 대한 방어로 스스로를 처벌 또는 고통 받도록 하여 보상하려고 하는 행동이 뒤따른다고 하였다(김현주, 2008). Lewis(1971, 1987)는 수치심을 전체 자기(entire self)가 손상되어 문제시되는 경험으로 보았다. 수치심의 가장 큰 원인이 사랑의 철회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수치심의 자기(self)는 수동적이고 무력하며, 자신을 관찰 하고 관찰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자기 기능에 있어서 분리(split) 현상이 일어나 자기 통합성이 상실된다(박윤선, 2008).

실제적인 대중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시선 앞에 노출되었다고 느끼는데, 자기 전체가 부정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보 같고, 어리석고, 유치하고, 우스꽝스럽게 느낀다. 이에 따라 회피하고, 위축되며, 내적으로 도망가거나 숨고 싶어 한다고 한다 (강보운, 2009). 이러한 수치심이 방어기제로 작용하여 분노감, 모욕감, 노여움 등이 표출되거나 타인에게 잘못을 투사하고 비난하여 수치심을 보상하기 위해 오만함, 거만함, 뻔뻔스러움으로 외재화 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박윤선, 2007). Kafuman(1989)은 수치심이 자기에 대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며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상처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이 축소된 느낌과 함께 남에게 준비 없이 보여 지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경험으로써, 무가치감과 열등감 정서로 개인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박지현, 2007).

Nathanson(1992)은 개인의 특성, 경쟁, 자기감, 독립-의존, 개인적 매력, 노출과 관련된 문제, 성적 관심, 친밀함에 대한 욕구와 공포를 지각하는데 수치심이 관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치심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 남에게 뒤진다는 느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독립-의존의 문제, 신체적 매력 부족, 뭔가 모자란다는 자기지각, 관계가 가까워질 때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구, 성적 결함, 타인에게 노출되어 다 드러나 보이기 전에 도망가려는 충동과 함

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면서 친밀감에 대한 공포를 수반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박윤선, 2007). 이러한 수치심의 방어기제로 자기 공격, 철회, 회피, 타인공격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에서 최정임, 심혜숙(2010)은 겉으로 드러난 분노감의 내면의 수치심에 주목하였다. 수치심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강렬한 정서 경험을 많이 하고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손상되어있다(Gohm, 2003).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수줍음과 억제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건강한 자기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대인관계 문제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태영, 심혜숙, 2011).

수치심은 생애 초기 유아와 어머니 혹은 주 양육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난다(Broucek, 1991; Nathanson, 1992; Tomkins, 1987). 수치심이 어머니와의 애착경험과 관련된다는 것은 경험적 연구로도 보고하였다(이인숙, 최해림, 2005; 이지연, 2008; Classon & Sohlberg, 2002; Cook, 1991; Gilbert, Allan, & Goss, 1996). 즉 초기 어머니 혹은 주 양육자와의 대상경험은 수치심 정서를 자기 안에 내면화되도록 하는데, 이후의 대상경험이 수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경우 수치심 역시 반복적으로 경험될 것으로 보인다(이인숙, 2009). 이렇게 유지되는 수치감은 모든 발달단계에 걸쳐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을 지속적으로 가져온다(이인숙, 2009). 수치심과 우울이 강한 정적 관련이 있음은 연구들에서 입증되고 있다(Harder, Cuter, & Rockart, 1992; Tangney & Wagner, & Gramzow 1992). Lewis(1971)에 따르면 수치심은 자기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으로서,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전체적인 귀인을 함으로써 Beck 등이 말하는 우울의 개념과 일치하게 된다(심중온, 1999).

Tangney, Wagner 그리고 Gramzow (1992)는 수치심 정서는 우울 생성적 귀인 양식과 중증도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Cheung, Gilbber, Irons(2004)에 따르면 수치심과 우울은 반추적 반응양식을 매개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고된다. 수치심과 죄책감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송수민(2008)에 따르면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과, 죄책감 경향성이 높은 사람 모두 부정적 사건에서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이인숙, 2009). 그러나 긍정적 사건 후에 느끼는 정서 및 만족감은 죄책감 경향성에서는 관련이

나타나고, 수치심 경향성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수치심 경향성이 큰 사람이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경우 자신의 성향으로 원인을 귀인 하여, 자신의 심리적 고통 혹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건을 경험할 경우에는 자신의 성향으로 돌리지 않아 긍정적 사건에서도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나타났다(이인숙, 2009).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은 적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수치심 정서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내면화되면서, 전반적인 낮은 자존감과 우울 생성적 귀인양식을 유발하는 성격 요소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이인숙, 2009). 이에 수치심은 자기대상 경험과 대상관계 수준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자기대상 경험을 하지 못하면, 원천적으로 자기발달이 불가능하다. 자기대상 경험의 실패는 아이의 자기대상이 이상화를 받아주는 기능 또는 거울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자기가 취약해질 경우를 말한다(조난숙, 2014). 코헛은 자기대상 경험의 반복적인 실패로 인한 외상이 왜곡되고 취약한 자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Kohut, 1971). 자기대상 경험과 수치심에 대한 경험적 선행 연구가 현재까지 없지만, 자기대상 경험과 자기에 사이에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알려졌고, 자기에와 수치심 사이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자기대상 경험과 수치심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조난숙, 2014). 손운산(2009)은 자기심리학에 수치심은 자기대상 경험의 실패에서 오며, 좋은 대상경험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짐을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기대상 경험과 수치심과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2.3.2 수치심의 선행연구

수치심을 연구한 학자들은 수치심을 정서인 동시에 내면화된 성격으로 보기도 한다(장영신, 2009). 수치심을 개인의 내면화한 성격으로 보는 근거는 수치심이 유아기 초기에 형성되어 이후 생애 걸쳐 성격적 특성으로 자리 잡는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재훈, 1999). 타인과의 관계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의 정신세계를 구성한다. 유아기 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험과 존중받음으로 한 사람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갖고, 초기 양육자에게 지속적으로 거부 받은 부정적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러한 자기와 타인 표상을 갖게 된다고 한다. 코헛(1971)은 생의 초기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충분히 좋을수록 긍정적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자기 확신과 자아존중감이 부족하게 되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다(장진아, 2006). 선행연구에서도 수치심이 직접적 혹은 매개로 자기에와 사회불안(한혜림, 2004), 병리적 의존(신주연, 2003), 자기불일치(서현령, 2002), 우울 및 사건귀인(심종온, 2000; 정형수, 2003), 분노, 우울, 불안(류설영, 1998), 성인애착과 우울(박주용, 2004),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전철은, 2002), 애착, 과민성, 자기에, 외로움(이인숙, 2005)과의 관계등과 같이 부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부터 전생애 관계 맺는 타인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인관관계를 하면서 생기는 수치심이 자기대상경험에 따른 현재 대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변인관계를 형성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3.3. 자기대상경험-수치심, 자기대상경험-대상관계수준, 수치심-대상관계수준에 관한 선행연구

자기대상경험과 수치심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와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구현경, 김종남, 2014; 이현길, 2012). 본 연구에서는 코헛의 자기심리학 이론과 이들의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자기대상 경험과 수치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기대상경험은 인간의 자기체계 확립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김은혜, 2014). 우리나라의 경우 목회

상담이나(김갑성, 2007) 학교 상담(김미자, 정남운, 2008; 이종연, 2010), 그 외상담 과정 및 장면에 대한 연구(김미자, 2009; 이종연, 김복미, 2012)와 외상 당시의 자기대상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태사, 안명희, 2013)가 거의 전부인 실정이다.

대상관계와 수치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주로 종교적 입장에서 자기애와 관련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의 수치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사례연구를 실행 하였는데 여성의 수치심에 대해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는 여성의 경우 심리 사회적 영향으로 남성보다 높게 수치심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혜림(2003)은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있는데 있어서 대상관계에 자기애적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기애에 상처를 입음으로 수치심이 발생하고, 수치심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에 수치심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지역의 연구자 주변인들의 불특정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20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하고 19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기대상경험 척도, 대상관계 척도, 수치심 척도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각 척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자기대상경험

Kim(2001)이 코헛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적/영적 산소량의 측정(A Measurement Scale on the Individual level of Psychological & Spiritual Oxygen)’ 하기 위한 인터뷰 한 문항을 변안하여 김갑성(2007)이 자기대상경험 척도를 제작, 조난숙(2013)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대상경험은 생애초기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므로 (Kohut, 1977), 이 척도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함께 기술되어 과거의 경험까지 묻고 있다.

자기대상경험 척도는 총 52문항으로 구성되며 평균은 3.55점 표준편차는 .6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은 평균은

3.72점 표준편차는 .70이었고,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 경험은 평균은 3.47점 표준편차는 .74이었다. 그리고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은 평균 3.38점 표준편차는 .67이었고, 이상화 자기대상경험은 평균 3.34점 표준편차는 .73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반영적 자기대상 경험은 평균 3.72점 표준편차는 .67로 분석되었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치도를 의미하는 크론바흐알파(Cronbach's α)를 통해 검토하였다.

자기대상경험 척도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alpha=.974$ 로 나타나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alpha=.934$),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 경험($\alpha=.928$),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alpha=.910$), 이상화 자기대상 경험($\alpha=.830$), 반영적 자기대상 경험($\alpha=.927$)으로 분석되어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자기대상경험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3-1>과 같다.

<표 3-1> 자기대상경험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	18, 20, 37, 40, 41, 44, 47, 49, 50, 51, 52	11	3.72	.70	.934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 경험	4, 6, 15, 17, 19, 22, 24, 25, 29, 35, 39, 43, 45	13	3.47	.74	.928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	5, 7, 11, 23, 26, 27, 31, 36, 38, 42, 46	11	3.38	.67	.910
이상화 자기대상 경험	2, 8, 21, 28, 33	5	3.34	.73	.830
반영적 자기대상 경험	1, 3, 9, 10, 12, 13, 14, 16, 30, 32, 34, 38	12	3.72	.67	.927
전체		52	3.55	.61	.974

3.2.2 대상관계

본 연구에서는 대상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45문항의 자기보고식 대상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Bell과 동료들(Bell, Billington, & Becker, 1986)이 개발한 대상관계 질문지(OR-Inventory)를 박부형과 이영호(2004)가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대상관계 척도는 불안정 애착(15문항)과 사회적 무능력(9문항), 소외(11문항), 자아중심성(10문항)의 각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 주요 구성개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애착은 대인관계 안에서 느끼는 정서적 고통감을 측정하고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대상상실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타인의 사랑과 인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많음을 나타낸다. 둘째, 사회적 무능력은 이성에 대하여 부끄러움이나 친구관계에서의 친밀함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측정하고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정서적으로 둔감하고 타인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셋째, 소외는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측정하고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으며 신뢰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아중심성은 타인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타인은 나의 목표를 위해 이용되어질 수 있다는 신념을 측정하고 있다.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착취적이고 요구적인 면을 많이 보이게 된다.

대상관계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구성되며 평균은 2.48점 표준편차는 .4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은 평균 2.56점 표준편차는 .58이었고, 사회적 무능력은 평균 2.59점 표준편차는 .50이었다. 그리고 소외는 평균 2.25점 표준편차는 .52이었고, 자아중심성은 평균 2.54점 표준편차는 .55로 분석되었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를 통해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관계 척도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alpha=.919$ 로 나타나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alpha=.873$), 사회적 무능력 ($\alpha=.688$), 소외($\alpha=.771$), 자아중심성($\alpha=.760$)으로 분석되어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2〉 대상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불안정 애착	5, 8*, 9, 12, 13, 17, 20, 22, 23, 26, 29, 33, 34, 36, 41	15	2.56	.58	.873
사회적 무능력	14, 15*, 25*, 28, 30*, 32, 37*, 38, 43	9	2.59	.50	.688
소외	1*, 3, 4, 7*, 18, 19, 21*, 27, 35, 40, 42*	11	2.25	.52	.771
자아중심성	2, 6, 10, 11, 16, 24, 31, 39, 44, 45	10	2.54	.55	.760
전체		45	2.48	.45	.919

*는 리버스 코딩 문항임

3.2.3 수치심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Internalized Shame Scale)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ISS는 총 30 문항으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 문항(4, 9, 14, 21, 28)의 자존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치심 척도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 불안이 포함된다.

자존감의 6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치심 척도에 포함시킨 것이다.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계로 측정한다. ‘그런 경우가 없다(0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점)’으로 이루어진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척도 전체 점수의 범위는 0~9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며 평균은 2.50점 표준편차는 .54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적절감은 평균 2.11점 표준편차는 .75이었고, 공허는 평균 2.23점 표준편차는 .93이었다. 그리고 자기처별은 평균 2.28점 표준편차는 .77이었고, 실수 및 불안은 평균 2.82점 표준편차는 .73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은 평균 3.36점 표준편차는 .68로 분석되었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를 통해 내적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수치심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alpha=.925$ 로 나타나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적절감($\alpha=.934$), 공허($\alpha=.927$), 자기처별($\alpha=.817$), 실수 및 불안($\alpha=.775$), 자존감($\alpha=.852$)로 분석되어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3〉 수치심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부적절감	1, 2, 3, 5, 7, 8, 10, 11, 12, 24	10	2.11	.75	.934
공허	23, 26, 27, 29, 30	5	2.23	.93	.927
자기처별	15, 17, 20, 22, 25	5	2.28	.77	.817
실수, 불안	6, 13, 16, 19	4	2.82	.73	.775
자존감	4, 9, 14, 18, 21, 28	6	3.36	.68	.852
전체		30	2.50	.54	.925

3.3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연구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일변량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동시에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대상경험, 대상관계, 수치심에서 평균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으로는 쉘페 검정(Scheffe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대상경험, 대상관계, 수치심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를 확인하였다.

넷째,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mediator effect)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CFI, TLI, RMSEA를 검토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의 특성을 살펴본 뒤 매개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였고,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에는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 및 기초통계

4.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이 154명(80.2%)으로 남성(38명, 19.8%)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97명(50.5%) 종교가 있는 대상자(95명, 49.5%)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보였다. 종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 신자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17명), 불교(15명), 기타 종교(3명)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71명(37.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40대(52명, 27.1%), 20대(48명, 25.0%), 50대 이상(21명,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약 37세(표준편차 9.31세)로 분석되었다.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성 별	남	38	19.8
	여	154	80.2
종 교	기독교	60	31.3
	불교	15	7.8
	천주교	17	8.9
	기타종교	3	1.6
	종교 없음	97	50.5
연 령	20대	48	25.0
	30대	71	37.0
	40대	52	27.1
	50대 이상	21	10.9
	연령 평균	37.10세 (± 9.31)	
	전 체	192	100

4.1.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일변량 정규성 검토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하면서 일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line(2005)의 기준에 따라 왜도는 절대값 '3'을 초과하거나, 첨도는 절대값 '10'을 초과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왜도는 .150~1.055의 범위에 있었고, 첨도는 .001~2.007의 범위에 있어 일변량 정규성은 충족되었다.

먼저 독립변수인 자기대상경험의 전체 평균은 1.12에서 5.0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3.55점($\pm .61$)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기대상경험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은 1.09에서 5.0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3.72점($\pm .70$)으로 분석되었고,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 경험은 1.00에서 5.0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3.47점($\pm .74$),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은 1.09에서 5.0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3.38점($\pm .6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상화 자기

대상 경험은 1.00에서 5.0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3.34점($\pm .73$)으로 분석되었고, 마지막으로 반영적 자기대상 경험은 1.17에서 5.0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3.72점($\pm .67$)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대상관계의 경우 전체평균은 1.42에서 3.93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2.48점($\pm .45$)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은 1.13에서 4.0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2.56점($\pm .58$)으로 분석되었고, 사회적 무능력은 1.33에서 4.78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2.59점($\pm .50$), 소외는 1.00에서 4.36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2.25점($\pm .52$), 자아중심성은 1.00에서 4.0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2.54점($\pm .55$)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수치심의 경우 전체 평균은 1.33에서 4.23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2.50점($\pm .54$)으로 분석되었다. 하위변수별로 살펴보면, 부정적 절감은 1.00에서 4.9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2.11점($\pm .75$)으로 분석되었고, 공허는 1.00에서 5.0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2.23점($\pm .93$), 자기처벌은 1.00에서 5.0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2.28점($\pm .7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수 및 불안은 1.00에서 5.00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2.82점($\pm .73$), 자존감은 1.17에서 4.83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3.36($\pm .68$)으로 분석되었다.

〈표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N=192)

변수	하위변인	최소값	최대값	M(±SD)	왜도	첨도
자기 대상 경험	자기대상경험 전체	1.12	5.00	3.55(±.61)	-.906	2.007
	쌍둥이 자기대상경험	1.09	5.00	3.72(±.70)	-1.055	1.707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경험	1.00	5.00	3.47(±.74)	-.569	.394
	집단적 자기대상경험	1.09	5.00	3.38(±.67)	-.476	.950
	이상화 자기대상경험	1.00	5.00	3.34(±.73)	-.471	.316
	반영적 자기대상경험	1.17	5.00	3.72(±.67)	-.987	1.875
대상 관계	대상관계 전체	1.42	3.93	2.48(±.45)	.265	.015
	불안정 애착	1.13	4.00	2.56(±.58)	.177	-.266
	사회적 무능력	1.33	4.78	2.59(±.50)	.150	1.745
	소외	1.00	4.36	2.25(±.52)	.416	.630
	자아중심성	1.20	4.00	2.54(±.55)	.271	.001
수치심	수치심 전체	1.33	4.23	2.50(±.54)	.501	.439
	부적절감	1.00	4.90	2.11(±.75)	.808	1.062
	공허	1.00	5.00	2.23(±.93)	.669	.210
	자기차별	1.00	5.00	2.28(±.77)	.757	.943
	실수 및 불안	1.00	5.00	2.82(±.73)	.237	.220
	자존감	1.17	4.83	3.36(±.68)	-.622	.942

4.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4.2.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4-3>과 같다. 자기대상경험에서는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t=-3.097$, $p<.01$)과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t=-2.320$, $p<.05$)에서 유의한(significant)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의 경우 여성($3.79\pm.70$)이 남성($3.42\pm.65$)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사하게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의 경우에도 여성($3.43\pm.69$)이 남성($3.16\pm.5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대상관계와 수치심의 경우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3〉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변수	하위변인	성별	N	M	SD	t
자기대상경험	자기대상경험 전체	남	38	3.38	.49	-1.918
		여	154	3.59	.63	
	쌍둥이 자기대상경험	남	38	3.42	.65	-3.097*
		여	154	3.79	.70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경험	남	38	3.45	.64	-.191
		여	154	3.48	.77	
	집단적 자기대상경험	남	38	3.16	.54	-2.320*
		여	154	3.43	.69	
	이상화 자기대상경험	남	38	3.21	.63	-1.228
		여	154	3.37	.75	
	반영적 자기대상경험	남	38	3.56	.53	-1.663
		여	154	3.76	.70	
대상관계	대상관계 전체	남	38	2.53	.38	.733
		여	154	2.47	.46	
	불안정 애착	남	38	2.61	.56	.593
		여	154	2.55	.59	
	사회적 무능력	남	38	2.59	.45	.042
		여	154	2.59	.51	
	소외	남	38	2.37	.46	1.559
		여	154	2.22	.53	
	자아중심성	남	38	2.54	.47	.107
		여	154	2.54	.57	
수치심	수치심 전체	남	38	2.57	.47	.852
		여	154	2.49	.56	
	부적절감	남	38	2.21	.67	.906
		여	154	2.09	.77	
	공허	남	38	2.34	.91	.763
		여	154	2.21	.93	
	자기처벌	남	38	2.27	.58	-.105
		여	154	2.28	.81	
	실수 및 불안	남	38	2.89	.59	.703
		여	154	2.80	.76	
	자존감	남	38	3.40	.54	.443
		여	154	3.34	.70	

*p<.05, **p<.01, ***p<.001

4.2.2 연구대상자의 종교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종교의 유무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4-4>와 같다. 유일하게 자기대상경험에서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t=-2.923$, $p<.01$)만이 유의한(significant)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의 경우에 여성($3.52\pm.64$)이 남성($3.24\pm.67$)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나머지 주요 변인들의 경우 종교의 유무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4〉 연구대상자의 종교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변수	하위변인	종교	N	M	SD	t
자기 대상 경험	자기대상경험 전체	없음	97	3.49	.62	-1.352
		있음	95	3.61	.59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	없음	97	3.67	.74	-.877
		있음	95	3.76	.66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경험	없음	97	3.46	.77	-.302
		있음	95	3.49	.72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	없음	97	3.24	.67	-2.923*
		있음	95	3.52	.64	
	이상화 자기대상 경험	없음	97	3.27	.70	-1.275
		있음	95	3.41	.75	
	반영적 자기대상 경험	없음	97	3.67	.67	-1.074
		있음	95	3.77	.67	
대상 관계	대상관계 전체	없음	97	2.47	.45	-.458
		있음	95	2.50	.45	
	불안정 애착	없음	97	2.54	.60	-.511
		있음	95	2.58	.57	
	사회적 무능력	없음	97	2.60	.55	.258
		있음	95	2.58	.44	
	소외	없음	97	2.22	.50	-.763
		있음	95	2.28	.54	
수치심	자아중심성	없음	97	2.53	.53	-.268
		있음	95	2.55	.57	
	수치심 전체	없음	97	2.51	.52	.220
		있음	95	2.49	.56	
	부적절감	없음	97	2.09	.76	-.316
		있음	95	2.13	.75	
	공허	없음	97	2.24	.95	.162
		있음	95	2.22	.90	
	자기처벌	없음	97	2.29	.74	.228
		있음	95	2.27	.80	
	실수 및 불안	없음	97	2.85	.73	.531
		있음	95	2.79	.73	
	자존감	없음	97	3.39	.65	.643
		있음	95	3.32	.70	

*p<.05, **p<.01, ***p<.001

4.2.3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자기대상경험의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4-5>와 같다. 유일하게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F=3.379$, $p<.05$)에서 유의한(significant) 차이가 존재하였다. 20대의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 수준이 가장 높았고($3.88 \pm .52$), 40대($3.76 \pm .63$), 30대($3.69 \pm .75$), 50대($3.32 \pm .94$)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쉐페 검정(Scheffe test)을 통한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20대가 50대 이상에 비해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자기대상경험의 차이

변수	하위변인	연령	N	M	SD	F
자기대상 경험	자기대상경험 전체	20대 ^a	48	3.68	.48	2.285
		30대 ^b	71	3.49	.64	
		40대 ^c	52	3.61	.56	
		50이상 ^d	21	3.31	.79	
	쌍둥이 자기대상경험	20대 ^a	48	3.88	.52	3.379* a>d
		30대 ^b	71	3.69	.75	
		40대 ^c	52	3.76	.63	
		50이상 ^d	21	3.32	.94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경험	20대 ^a	48	3.62	.72	1.650
		30대 ^b	71	3.35	.75	
		40대 ^c	52	3.56	.61	
		50이상 ^d	21	3.35	1.02	
	집단적 자기대상경험	20대 ^a	48	3.48	.53	1.630
		30대 ^b	71	3.33	.74	
		40대 ^c	52	3.46	.64	
		50이상 ^d	21	3.13	.78	
	이상화 자기대상경험	20대 ^a	48	3.43	.71	.763
		30대 ^b	71	3.26	.79	
		40대 ^c	52	3.40	.69	
		50이상 ^d	21	3.24	.70	
	반영적 자기대상경험	20대 ^a	48	3.82	.51	1.352
		30대 ^b	71	3.69	.75	
		40대 ^c	52	3.76	.62	
		50이상 ^d	21	3.48	.80	

*p<.05, **p<.01, ***p<.001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대상관계의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4-6〉와 같다. 유일하게 소외(F=3.415, p<.05)에서 유의한(significant) 차이가 존재하였다. 50대 이상의 소외 수준이 가장 높았고(2.58±.64), 40대

($2.24 \pm .47$), 20대($2.21 \pm .51$), 30대($2.19 \pm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쉼페 검정(Scheffe test)을 통한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30대 이상에 비해 소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대상관계의 차이

변수	하위변인	연령	N	M	SD	F
대상 관계	대상관계 전체	20대 ^a	48	2.54	.44	1.303
		30대 ^b	71	2.41	.44	
		40대 ^c	52	2.48	.45	
		50이상 ^d	21	2.59	.50	
	불안정 애착	20대 ^a	48	2.67	.56	.841
		30대 ^b	71	2.50	.59	
		40대 ^c	52	2.54	.58	
		50이상 ^d	21	2.57	.62	
	사회적 무능력	20대 ^a	48	2.63	.50	.911
		30대 ^b	71	2.51	.56	
		40대 ^c	52	2.61	.45	
		50이상 ^d	21	2.68	.38	
	소외	20대 ^a	48	2.21	.51	3.415* d>b
		30대 ^b	71	2.19	.50	
		40대 ^c	52	2.24	.47	
		50이상 ^d	21	2.58	.64	
	자아중심성	20대 ^a	48	2.65	.58	1.261
		30대 ^b	71	2.45	.47	
		40대 ^c	52	2.54	.60	
		50이상 ^d	21	2.56	.62	

*p<.05, **p<.01, ***p<.001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대상관계의 수치심의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4-7>와 같다. 수치심의 모든 하위변인들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수치심의 차이

변수	하위변인	연령	N	M	SD	F
수치심	수치심 전체	20대 ^a	48	2.50	.46	.601
		30대 ^b	71	2.48	.56	
		40대 ^c	52	2.48	.54	
		50이상 ^d	21	2.65	.65	
	부적절감	20대 ^a	48	2.06	.68	1.127
		30대 ^b	71	2.06	.76	
		40대 ^c	52	2.12	.74	
		50이상 ^d	21	2.39	.88	
	공허	20대 ^a	48	2.14	.75	.400
		30대 ^b	71	2.29	1.01	
		40대 ^c	52	2.20	.90	
		50이상 ^d	21	2.36	1.09	
	자기처벌	20대 ^a	48	2.28	.73	.720
		30대 ^b	71	2.27	.80	
		40대 ^c	52	2.20	.71	
		50이상 ^d	21	2.50	.88	
	실수 및 불안	20대 ^a	48	2.92	.73	.484
		30대 ^b	71	2.79	.76	
		40대 ^c	52	2.76	.66	
		50이상 ^d	21	2.87	.79	
	자존감	20대 ^a	48	3.45	.73	.472
		30대 ^b	71	3.31	.69	
		40대 ^c	52	3.35	.60	
		50이상 ^d	21	3.31	.72	

*p<.05, **p<.01, ***p<.001

4.3 자기대상경험, 대상관계, 수치심간의 상관관계

〈표 4-8〉 자기대상경험, 대상관계, 수치심 간의 상관관계

	1	1.1	1.2	1.3	1.4	1.5	2	2.1	2.2	2.3	2.4	3	3.1	3.2	3.3	3.4	3.5
1	1																
1.1	.900**	1															
1.2	.812**	.589**	1														
1.3	.855**	.739**	.547**	1													
1.4	.824**	.694**	.610**	.721**	1												
1.5	.920**	.854**	.631**	.766**	.717**	1											
2	-.351*	-.319*	-.284**	-.239**	-.164*	-.438**	1										
2.1	-.262**	-.189*	-.254**	-.170*	-.103	-.346**	.934**	1									
2.2	-.409**	-.351**	-.318**	-.316**	-.249**	-.474**	.750**	.651**	1								
2.3	-.474**	-.519**	-.332**	-.334**	-.248**	-.536**	.741**	.543**	.492**	1							
2.4	-.043	-.043	-.034	-.002	.023	-.112	.793**	.734**	.387**	.405**	1						
3	-.369**	-.270**	-.374**	-.273**	-.212**	-.404**	.600**	.622**	.517**	.357**	.415**	1					
3.1	-.466**	-.388**	-.422**	-.360**	-.249**	-.509**	.647**	.611**	.585**	.511**	.388**	.911**	1				
3.2	-.396**	-.307**	-.412**	-.247**	-.211**	-.449**	.590**	.603**	.524**	.408**	.351**	.903**	.834**	1			
3.3	-.337**	-.265**	-.331**	-.201**	-.211**	-.389**	.543**	.554**	.444**	.321**	.413**	.884**	.792**	.817**	1		
3.4	-.346**	-.217**	-.347**	-.289**	-.265**	-.359**	.540**	.574**	.555**	.241**	.364**	.842**	.735**	.694**	.704**	1	
3.5	.407**	.396**	.319**	.256**	.244**	.475**	-.374**	-.270**	-.432**	-.458**	-.113	-.159*	-.439**	-.349**	-.320**	-.172*	1

*p<.05, **p<.01

주: 1.자기대상경험 전체, 1.1.생동이 자기대상 경험, 1.2.부도에 의한 자기대상 경험, 1.3.질단적 자기대상 경험, 1.4.이상화 자기대상 경험, 1.5.반영적 자기대상 경험
 2.대상관계 전체, 2.1.불안정 애착, 2.2.사회적 무능력, 2.3.소외, 2.4.자아중심성
 3.수치심 전체, 3.1.부적절감, 3.2.공허, 3.3.자기 처벌, 3.4.일수 및 불안, 3.5.저조함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 요인 즉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 그리고 수치심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관계를 통해 검토하였다.

4.3.1. 연구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먼저 자기대상경험 전체는 대상관계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negative)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 = -.351, p < .01$). 즉 자기대상경험 수준이 높은 연구대상자는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대상경험 전체는 수치심 전체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369, p < .01$). 즉 자기대상경험 수준이 높은 연구대상자는 수치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대상관계 전체와 수치심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positive)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 = .600, p < .01$). 즉 대상관계 수준이 높은 연구대상자는 수치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들의 하위요인별로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대상경험 중 첫 번째 하위요인인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은 불안정 애착($r = -.189, p < .01$), 사회적 무능력($r = -.351, p < .01$), 소외($r = -.519, p < .01$), 부적절함($r = -.388, p < .01$), 공허($r = -.307, p < .01$), 자기차별($r = -.265, p < .01$), 실수 및 불안($r = -.217, p < .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존감($r = .396, p < .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 경험은 불안정 애착($r = -.254, p < .01$), 사회적 무능력($r = -.318, p < .01$), 소외($r = -.332, p < .01$), 부적절함($r = -.422, p < .01$), 공허($r = -.412, p < .01$), 자기차별($r = -.331, p < .01$), 실수 및 불안($r = -.347, p < .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존감($r = .319, p < .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은 불안정 애착($r = -.170, p < .05$), 사회적 무능력($r = -.316, p < .01$), 소외($r = -.334, p < .01$), 부적절함($r = -.360, p < .01$), 공허($r = -.247, p < .01$), 자기차별($r = -.201, p < .01$), 실수 및 불안($r = -.289, p < .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존감($r = .256, p < .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하위요인인

이상화 자기대상 경험은 사회적 무능력($r=-.249, p<.01$), 소외($r=-.248, p<.01$), 부적절함($r=-.249, p<.01$), 공허($r=-.211, p<.01$), 자기처벌($r=-.211, p<.01$), 실수 및 불안($r=-.265,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존감($r=.244,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하위 요인인 반영적 자기대상 경험은 불안정 애착($r=-.346, p<.01$), 사회적 무능력($r=-.474, p<.01$), 소외($r=-.536, p<.01$), 부적절함($r=-.509, p<.01$), 공허($r=-.449, p<.01$), 자기처벌($r=-.399, p<.01$), 실수 및 불안($r=-.359,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존감($r=.475,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관계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불안정 애착은 부적절함($r=.611, p<.01$), 공허($r=.603, p<.01$), 자기처벌($r=.554, p<.01$), 실수 및 불안($r=.574,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존감($r=-.270,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사회적 무능력은 부적절함($r=.585, p<.01$), 공허($r=.524, p<.01$), 자기처벌($r=.444, p<.01$), 실수 및 불안($r=.555,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존감($r=-.432,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소외는 부적절함($r=.511, p<.01$), 공허($r=.408, p<.01$), 자기처벌($r=.321, p<.01$), 실수 및 불안($r=.241,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존감($r=-.458,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중심성은 부적절함($r=.388, p<.01$), 공허($r=.351, p<.01$), 자기처벌($r=.413, p<.01$), 실수 및 불안($r=.364,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4.3.2. 주요변수와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다음은 자기대상경험 전체와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자기대상경험 전체는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r=.900, p<.01$),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 경험($r=.812, p<.01$),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r=.855, p<.01$), 이상화 자기대상 경험($r=.824, p<.01$), 반영적 자기대상 경험($r=.920, p<.01$)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은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 경험($r=.589, p<.01$),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r=.739, p<.01$), 이상화 자기대상 경험($r=.694, p<.01$), 반영적 자기대상 경험($r=.854, p<.01$)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 경험은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r=.547, p<.01$), 이상화 자기대상 경험($r=.610, p<.01$), 반영적 자기대상 경험($r=.631, p<.01$)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은 이상화 자기대상 경험($r=.721, p<.01$), 반영적 자기대상 경험($r=.766, p<.01$)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화 자기대상 경험은 반영적 자기대상 경험($r=.717,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대상관계 전체와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대상관계 전체는 불안정 애착($r=.934, p<.01$), 사회적 무능력($r=.750, p<.01$), 소외($r=.741, p<.01$), 자아중심성($r=.793, p<.01$)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불안정 애착은 사회적 무능력($r=.651, p<.01$), 소외($r=.543, p<.01$), 자아중심성($r=.734,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무능력은 소외($r=.492, p<.01$), 자아중심성($r=.387,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외는 자아중심성($r=.405,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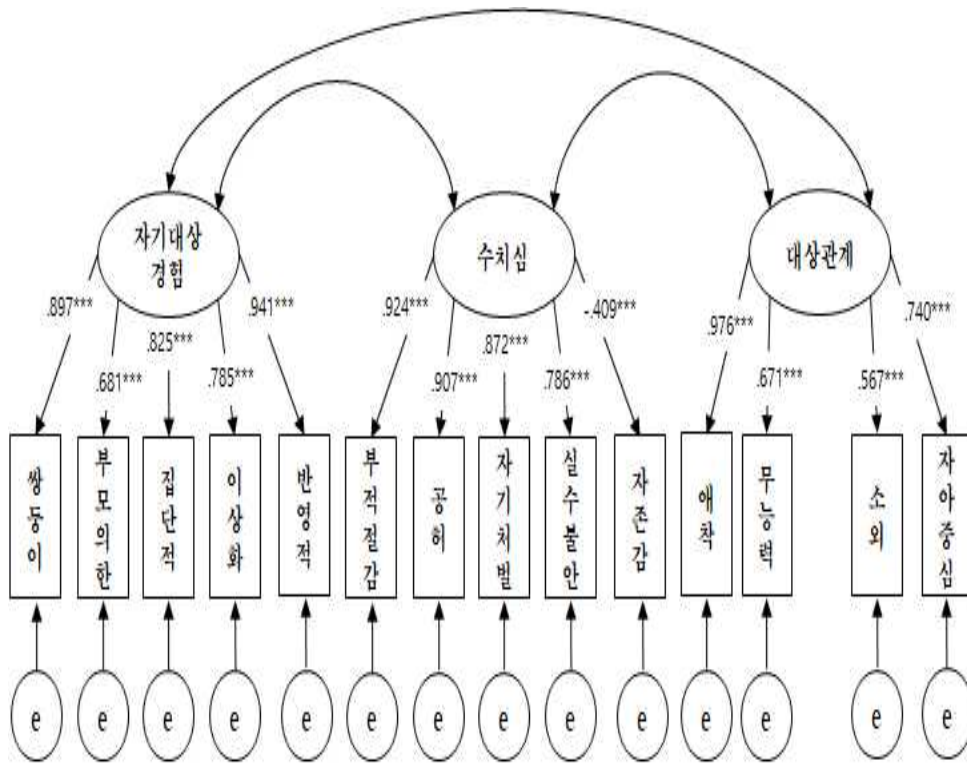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수치심 전체와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수치심 전체는 부적절감($r=.911, p<.01$), 공허($r=.903, p<.01$), 자기처벌($r=.884, p<.01$), 실수 및 불안($r=.842,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자존감($r=-.159, p<.05$)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적절감은 공

허($r=.834$, $p<.01$), 자기차별($r=.792$, $p<.01$), 실수 및 불안($r=.735$,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자존감($r=-.439$,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허는 자기차별($r=.817$, $p<.01$), 실수 및 불안($r=.694$,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자존감($r=-.349$,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차별은 실수 및 불안($r=.704$,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자존감($r=-.320$,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수 및 불안은 자존감($r=-.172$, $p<.05$)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4.4.1. 확인요인분석

자기대상경험이 대상관계에 미치는 경로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3개의 잠재변수(자기대상경험, 대상관계, 수치심)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자기대상경험, 매개변수인 수치심, 종속변수인 대상관계의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로는 홍세희(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χ^2 검증,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을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수용 기준의 경우 CFI, TLI의 경우 .90 이상인 경우 모형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05이하면 아주 좋은 모형, .08이하면 좋은 모형, .10이하면 보통수준으로 평가한다(Bollen and Long, 1993).



[그림 4-1] 잠재변수의 확인요인분석

분석결과 χ^2 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 하지만 χ^2 검증의 경우 샘플수에 매우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좋지 못한 모형이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영가설이 채택되는 오류를 2종 오류라 하며, 좋은 모형이 표본크기가 크다는 이유로 영가설이 기각되는 오류를 1종 오류라 할 때, χ^2 검증은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민감성과 영가설의 엄격성 등의 이유로 모형적합에 대한 판단은 χ^2 검증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Bollen and Long,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인 적합지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CFI, TLI의 경우 .90 이상으로 도출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RMSEA의 경우에도 .1이하로 분석되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9〉 확인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p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344.790	<.000	74	.913	.911	.098

〈표 4-10〉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λ)	표준오차 (S.E.)	표준화 계수(λ)
자기대상 경험	쌍둥이 자기대상경험	.998	.048	.897***
	부모에 의한 자기대상경험	.805	.069	.681***
	집단적 자기대상경험	.879	.052	.825***
	이상화 자기대상경험	.910	.060	.785***
	반영적 자기대상경험 ⁺	1.000	—	.941***
대상관계	불안정 애착 ⁺	1.000	—	.976***
	사회적 무능력	.585	.053	.671***
	소 외	.517	.059	.567***
	자아중심성	.715	.056	.740***
수치심	부적절감	.828	.040	.924***
	공 허 ⁺	1.000	—	.907***
	자기처벌	.799	.044	.872***
	실수 및 불안	.681	.047	.786***
	자존감	-.329	.056	-.40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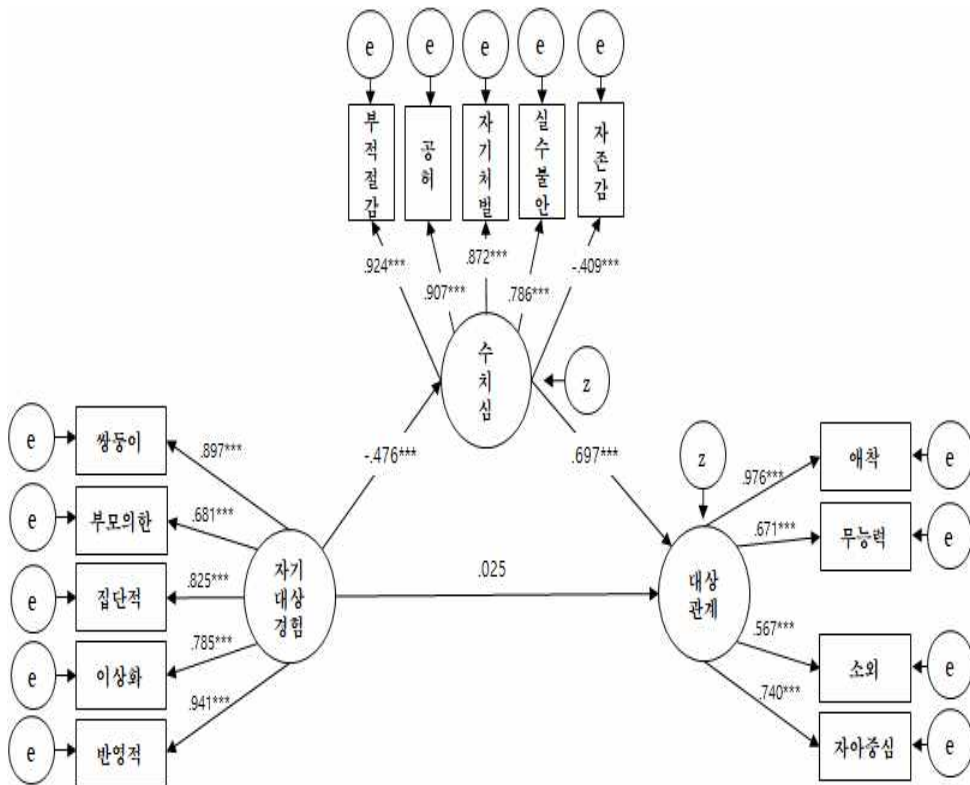
주: +의 경우 준거변수를 의미함

또한 〈표 4-10〉에 제시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의 경우에도 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로 .409에서 .976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각 측정 변인들이 해당하는 잠재변수를 대리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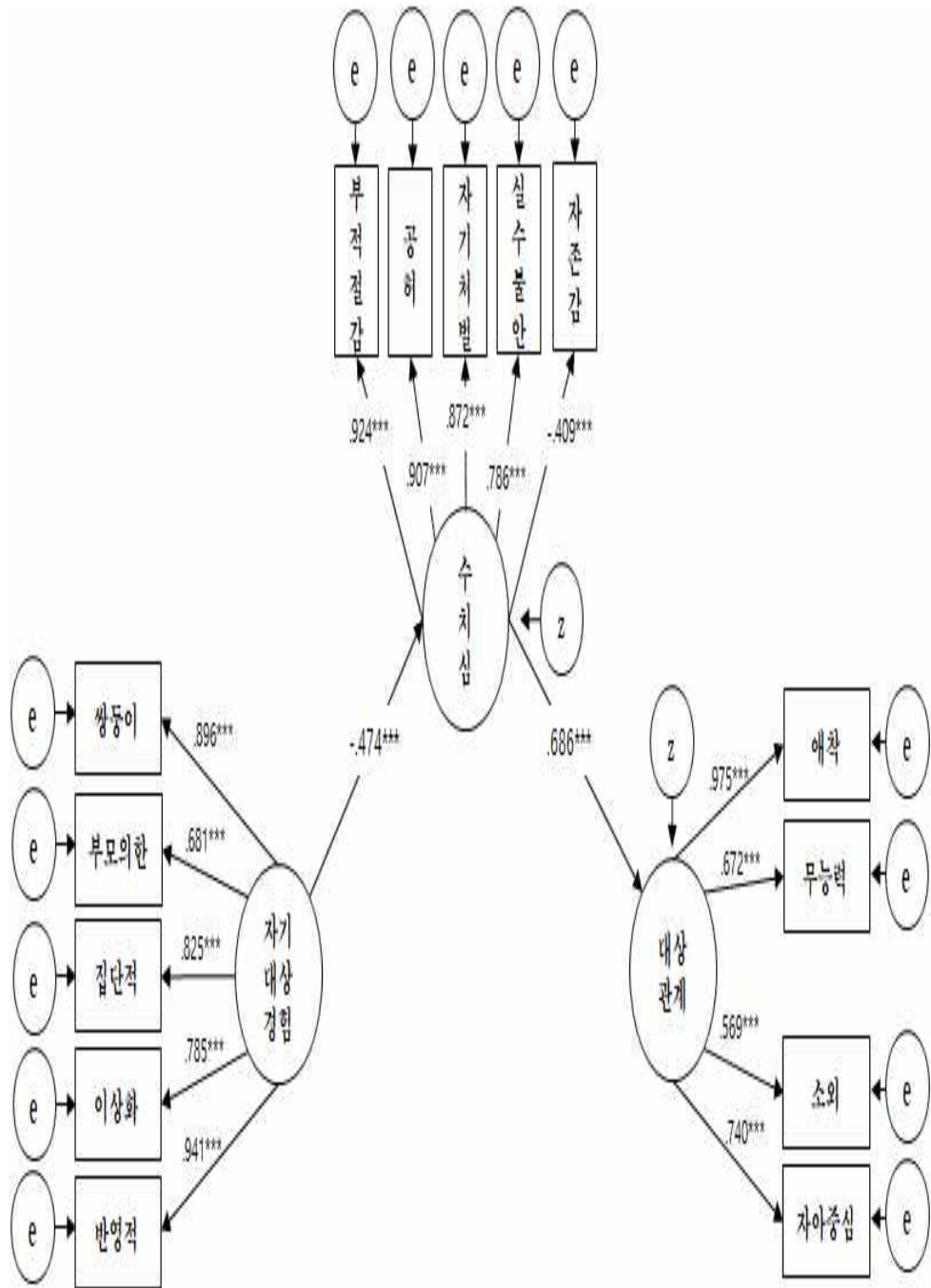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잠재변인들을 측정하고 있는 측정모형은 경험적으로 수용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4.2. 구조모형 검증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검증단계에서는 자기대상경험이 대상관계로 향하는 직접경로를 제거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경우 포함모형 관계(nest-nested model)이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모형비교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2]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검증결과(표준화 λ , γ , β)



[그림 4-3] 경쟁모형의 구조모형 검증결과(표준화 λ , γ , β)

〈표 4-11〉 내포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비교

모형	χ^2	p	$\Delta \chi^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344.790	<.000		74	.913	.911	.098
경쟁모형	344.918	<.000	.128	75	.903	.909	.099

〈표 4-11〉에서 제시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연구 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CFI, TLI의 경우 .90이상이고 RMSEA의 경우 .10이하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즉 내포모형(nested model)의 χ^2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연구모형이 경쟁모형에 비해 자유도 1을 손실하였고, χ^2 값에서 .128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이 더 열등한 모델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경쟁모형을 채택하되, 왈드(Wald) 검정을 통해 경쟁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확인하였다. 왈드 검정의 선택기준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AGFI가 높고 AIC가 낮은 쪽의 모형을 채택한다.”는 토요다 히데끼(豊田秀樹, 1992)의 기준에 따라 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4-12〉 Wald 검정의 적합도 지수 및 비교

모형	AGFI	AIC
연구모형	.906	406.790
경쟁모형	.902	404.918

〈표 4-13〉 최종모형(경쟁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γ, β)	표준오차 (S.E.)	표준화 계수 (γ, β)
자기대상경험 → 수치심	-.523	.078	-.474***
수치심 → 대상관계	.562	.050	.686***

***p<.001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경쟁모형의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들을 살펴보면 자기대상경험이 대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자기대상경험은 매개변수인 수치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gamma = -.474, p < .001$), 매개변수인 수치심은 종속변수인 대상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686, p < .001$). 따라서 자기대상경험은 수치심을 매개로 대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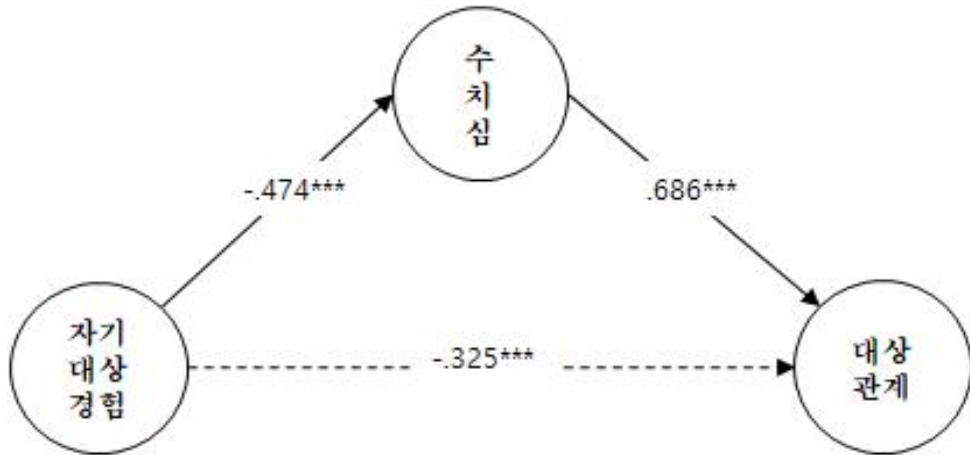
4.4.3. 효과의 분해 및 간접효과의 검증

자기대상경험이 수치심을 매개로 대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Sobel, 1982). 자기대상경험 → 수치심 → 대상관계 경로의 소벨 테스트 결과 Z값은 -5.758로 나타났으며, $p < .001$ 수준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치심은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4-14〉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Sobel test

경로	Sobel Z score	p-value
자기대상경험 → 수치심 → 대상관계	-5.758	.000***

*** $p < .001$



[그림 4-4]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주: 실선은 직접효과, 점선은 간접효과를 의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기대상경험은 직접적으로 대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수치심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기대상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수치심은 감소하고, 낮아진 수치심은 다시 대상관계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심리학(Kohut, 1971, 1977)에 근거하여 학부모(성인)의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 수준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오늘날 건강한 대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기대상경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자기대상경험을 위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를 위해 경기 지역 학부모(성인) 192명(남 38명, 여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 수준 그리고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 수준의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의 내용과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성별, 종교,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대상경험에서는 쌍둥이 자기대상경험($t=-3.097, p<.01$)과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t=-2.320,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의 경우 여성($3.79\pm.70$)이 남성($3.42\pm.65$)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사하게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의 경우에도 여성($3.43\pm.69$)이 남성($3.16\pm.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변인은 자기대상경험에서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t=-2.923, p<.01$)만이 유의한(significant)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집단적 자기대상 경험의 경우에 여성($3.52\pm.64$)이 남성($3.24\pm.67$)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자기대상경험의 결과는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F=3.379, p<.05$)에서 유의한(significant) 차이가 존재하였다. 20대의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 수준이 가장 높았고($3.88\pm.52$), 40대($3.76\pm.63$), 30대($3.69\pm.75$), 50대($3.32\pm.94$)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가 50대 이상에 비해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관계의 하위

척도 소외에서는 50대 이상이 30대 이상에 비해 소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관계 수준 측정치가 높을수록 낮은 대상관계를 의미하므로, 척도 자체는 부적상관을 보이지만, 자기대상경험 수준이 높은 경우 대상관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대상경험 전체는 수치심 전체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69, p<.01$). 즉 자기대상경험 수준이 높은 연구대상자는 수치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대상관계 전체와 수치심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positive)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600, p<.01$). 본 연구에서는 대상관계 수준 측정치가 높을수록 낮은 대상관계를 의미하므로,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연구대상자는 수치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대상경험이 대상관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복미, 이종연, 2011). 또한 자기대상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해 결핍된 자기대상경험에서 비롯하여 수치심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다(최서현, 2016).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으로는 확인요인분석을 거쳐 구조모형검증 효과 분해 및 간접효과의 검증을 통해 자기대상경험은 직접적으로 대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수치심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기대상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수치심은 감소하고, 낮아진 수치심은 다시 대상관계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대상경험은 대상관계수준 척도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수치심과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자기대상경험이 대상관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는(김복미, 이종연, 2011)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반대로 수치심을 낮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자기대상과의 충분한 관계 경험이 건강한 대상관계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 자기심리학 이론(Kohut, 1977; Wolf, 1988)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그동안 자기심리학 이론은 주로 사례연구와 문헌연구로 이루어져 각 변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건강한 대상관계를 형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서 자기심리학에서 제시한 개념인 자기대상경험이 대상관계와

어떤 상관성을 보이지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충족되지 않은 자기대상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이기도 하고, 자기대상경험은 수치심을 통해 심리내적 상태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험적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자기대상경험과 대상관계 수준의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전 생애에 걸쳐 다른 주변 사람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낮은 대상관계 수준을 형성하여 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대상경험은 생애초기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적절히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최서현, 2016). 또한 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만날 수 있는 교사나 멘토, 성인기에 만날 수 있는 연인, 배우자, 동료, 선배, 직장 상사 혹은 상담자나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다고 본다(홍이화, 2011). 따라서 과거의 자기대상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현재, 혹은 미래에 충분한 자기대상경험을 통하여 대상관계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대안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 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가 재현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변인의 측정과 관련하여 제한점이 있다. 설문에 응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과 방어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후에는 이런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대상경험이 대상관계 수준과의 관계를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코헷의 이론에 의하면 수치심뿐만 아니라 자기애성 격노와 섭식장애등의 변인들도 자기대상 욕구와 관련한 변인이므로 차후에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검증함으로써 인간의 정신과정에 대하여 지평을 넓혀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보운. (2009). 『초등학생의 모 애착과 분노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나영. (2004). 『수치심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예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수자, 이은희. (2006).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1(1), 21-40.
- 김갑성. (2007). 『자존감 회복 방안 연구 : 코헛(H. Kohut)의 자기대상론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자. (2009). 『내담자의 자기대상 욕구와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 관계』.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복미, 이종연. (2011). 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적 접근에 기초한 상담자 성숙성 모형 검증. 『한국상담학회』, 12(2), 739-756.
- 김복인, 이인수.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행복과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195-218.
- 김사훈. (1998). 『대학생의 초기 대상관계와 공감능력간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진. (1998). 『내담자의 대상관계 수준, 작업동맹 및 상담 중 의사소통 방식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진. (2001). 대상관계 수준 척도의 타당화 연구. 『심리과학』, 10(1), 69-92.
- 김윤주, 한성열. (1993).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7(1), 28-36.
- 김은주. (2004).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혜. (2014).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 자기대상 경험, 자기불일치, 수치감』.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아. (2003). 『수치심에 대한 목회 상담적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4).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 문제에서 수치심, 자기침묵 행동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2001). 대상관계이론의 상담적 적용에 관한 고찰. 『상담학연구』, 2(2), 327-344.
- 김현주. (2009).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의 관계 :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성호. (2001). 『대상관계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와 자아분화수준』.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희경. (2007).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상담』. 서울: 대서.
- 박경순. (2011). 수치심(Shame)과 자기애(Narcissism)의 정신분석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30(3), 889-907.
- 박경순, 안귀여루. (2012). 청소년들의 자기애와 수치심의 관계에서 대상관계의 중재효과.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12(1), 97-112.
- 박부형. (2000).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분리 개별화 수준 및 대상관계 특징』.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부형, 이영호. (2004).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1065-1084.
- 박상희. (2001). 『나르시시즘과 목회상담 : 자기대상 재 경험을 통한 치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희. (2011). 『자기대상 경험을 통한 역기능적 하나님 표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수민. (2007).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변인에 따른 차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정완. (2006). 『수치심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합동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세은. (2014).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 경험회피를 통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이환. (2000). 대상관계 이론과 상담실제.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2, 2, 47-59.
- 우상우. (2009). 대상관계와 반사회적 성격특성의 관련성에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1), 29-44 .
- 유준근. (2008). 『대상관계의 이해와 적용 : 변화와 성숙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다세움.
- 이계선. (2013). 『성인애착과 관계중독의 관계 : 자기대상욕구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7(3), 651-670.
- 이인숙, 이지연. (2009). 여성의 대상관계, 수치심, 자기침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학회』, 10(4), 1951-1969.
- 임종렬. (2001). 『대상중심이론 가족상담』. 서울: 한국가족복지연구소.
- 임현지. (2001). 『상담자-내담자 대상관계와 작업동맹』.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신. (2009). 『여성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 (2006). 『여성의 대상관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전철은. (2002).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린. (2013). 『대상관계이론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 2000-2012년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심. (2001). 대상관계 수준 척도의 타당화 연구. 『심리과학』, 1, 69-92.
- 정현심. (2006). 또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31-41.
- 정형수. (2003). 『수치심의 지각정도에 따른 대처방식과 우울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난숙. (2013). 자기대상 척도의 타당화와 종교집단 간의 비교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1), 181-121.
- 최서현. (2016). 『대학생의 자기대상경험과 자기에 간의 관계 : 공감 지각 및 수치심의 매개효과』. 부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민. (2010).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쉽게 쓴 정신분석이론』. 서울: 학지사.
- 최의현. (2001). Kohut의 자기이해: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과의 연관성.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 105-126.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 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2, 479-492.
- 최정숙. (2016). 『병사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 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8(3), 161-177.
- 홍은수. (2002). 『수치심의 이해 및 치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아. (2007). 『사회불안과 문화적 자기관, 수치심 및 죄책감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 Bollen, K. A., & Long, J. S.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California : Sage.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 Eric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Erickson, E. H. (1968).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Kaufman, G. (1992). *Shame : The power of Caring*(3rd ed.). Rochester, Vermont : Schenkman Books.
- Kohut.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Guilford Press.
- Nathanson, D. L. (1992). *Shame & pride*. New York : Guilford Press.
- Piers, G., & Singer, M. B. (1953). *Shame & guilt*.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Publisher.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Washington :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Tomkins, S. S. (1987). Shame. In D. L. Nathanson (Eds.), *The many face of shame*.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Tomkins, C. d., & Rando, R. A. (2003). Gender role conflict and shame in college men.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4, 79-81.
- Wheeler, G. (2000). Self and Shame : A Gestalt Approach. *Gestalt Review*, 4, 221-244.
- Winnicott, D. (1987). *The child, the family and the outside world*, New York : Addison-Wesley Publishing.
- 豊田秀樹. (1992). SASによる 共分散 構造分析. 東京大學出版會.

〈부록 1〉 연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질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나 현재에 자기 자신이나 주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매우 중요한 논문의 자료로서 사용되는 것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을 완전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mail (minlove0079@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질문지에 응답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 10.

연구자 : 이 민 정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조 난 숙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부록 2〉 RSE (자기대상경험)

• 해당란에 표시 해 주십시오.

1. 성별: 남(), 여()

2. 연령: 만()세

3.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없음()

다음 문장들은 사람들이 자신과 주변에 대해 경험하는 것들을 묘사한 것들입니다.

이들을 잘 읽어보시고 각각의 문항이 자신의 경험을 어느 정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정도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에서의 경험이 어린 시절에 있었거나, 현재에 진행 중이든 지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 어머니에 대한 질문에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면 아버지에 대한 경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R S E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아주 그렇다
--------------	-----------	---------	--------	-----------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1	2	3	4	5
2	주위에 나의 이상적인 대상이 가까이 있(었)다.	1	2	3	4	5
3	지도자나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	1	2	3	4	5
4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가장 멋있고 힘 있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1	2	3	4	5
5	내가 속한 공동체(학교, 교회 및 그 밖의 단체)의 지도자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인정한다.	1	2	3	4	5
6	나의 아버지(어머니) 혹은 선생님은 나의 이상적인 존재였다.	1	2	3	4	5
7	속해 있던 공동체(학교, 교회, 혹은 그 밖의 단체)의 구성원들과 형제자매와 같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다.	1	2	3	4	5
8	나의 역할모형과 가깝게 지낸 경험이 있다.	1	2	3	4	5
9	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	2	3	4	5
10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내가 속한 공동체(학교, 교회 및 그 밖의 단체)를 통해서 정신적인 힘을 얻고 있다.	1	2	3	4	5
12	나를 이 세상의 최고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명은 있(었)다.	1	2	3	4	5

13	같은 일을 홀내 내거나 모방하면서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었)다.	1	2	3	4	5
14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충분히) 인정하고 칭찬하였다	1	2	3	4	5
15	나의 어머니는 나의 기분과 감정을 잘 맞추어 주었다.	1	2	3	4	5
16	나로 하여금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1	2	3	4	5
17	나의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어머니(아버지)는 잘 받아주셨다.	1	2	3	4	5
18	내가 기쁘거나 슬플 때 같이 기뻐해주거나 슬퍼해 준 사람이 있(었)다.	1	2	3	4	5
19	나의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자기주장이나 과시를 잘 받아주었다.	1	2	3	4	5
20	친한 친구와 함께 운명공동체라고 느껴본 적이 있다.	1	2	3	4	5
21	나의 이상적인 대상이 되어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낸 적이 있다.	1	2	3	4	5
22	나의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었)다.	1	2	3	4	5
23	내가 속한 공동체(학교, 교회 및 그 밖의 단체)에서 친밀감을 느낀다.	1	2	3	4	5
24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존재였다.	1	2	3	4	5
25	어렸을 때 아버지(어머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다.	1	2	3	4	5
26	내가 속한 공동체(학교, 교회 및 그 밖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 나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1	2	3	4	5
27	내가 속한 공동체(학교, 교회 및 그 밖의 단체)의 지도자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28	나의 역할 모델(role model)로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다.	1	2	3	4	5
29	어머니(혹은 아버지)는 나의 느낌을 존중해 주었다.	1	2	3	4	5
30	사람들은 나의 행동과 성취에 높은 평가를 해주었다.	1	2	3	4	5
31	내가 속한 공동체(학교, 교회 및 그 밖의 단체)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신뢰한다.	1	2	3	4	5
32	나는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성장했다.	1	2	3	4	5
33	나의 이상을 이끌어 준 사람이 있(었)다.	1	2	3	4	5

34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1	2	3	4	5
35	나의 아버지(어머니)를 깊이 존경했던 적이 있다.	1	2	3	4	5
36	속해있던 공동체를 잠시 떠났을 때 굉장히 허전했다.	1	2	3	4	5
37	꿈과 가치와 이상 등이 나와 상당히 비슷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다.	1	2	3	4	5
38	내가 속한 공동체(학교, 교회 및 그 밖의 단체)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	1	2	3	4	5
39	나는 아버지와 함께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본 적이 있다(남자의 경우) 나는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해 본 적이 있다(여자의 경우)	1	2	3	4	5
40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1	2	3	4	5
41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	1	2	3	4	5
42	함께 참여하여 소속감과 안도감을 느끼는 공동체에 속한 적이 있(었)다.	1	2	3	4	5
43	나를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다.	1	2	3	4	5
44	나와 비슷한 이상을 가진 사람과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낸 적이 있다.	1	2	3	4	5
45	나의 행동과 성취를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	2	3	4	5
46	내가 속한 공동체(학교, 교회 및 그 밖의 단체)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1	2	3	4	5
47	비슷한 생각과 의견을 지닌 사람들과 가깝게 지낸 경험이 있다.	1	2	3	4	5
48	나의 잘난 체나 뽐냄을 잘 받아 준 사람이 있(었)다.	1	2	3	4	5
49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왔다.	1	2	3	4	5
50	나로 하여금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1	2	3	4	5
51	나와 비슷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진 친구와 사귀어 지냈다.	1	2	3	4	5
52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친구가 있(었)다.	1	2	3	4	5

〈부록 3〉 BORI (대상관계)

BORI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아주 그렇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과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2	3	4	5
2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한다.	1	2	3	4	5
3	나는 계속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고 싶다.	1	2	3	4	5
4	나는 몇 주일 씩 사람들과로부터 떨어져서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	1	2	3	4	5
5	나는 대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관계를 끝낸다.	1	2	3	4	5
6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른으로 취급하기보다 아이로 취급한다.	1	2	3	4	5
7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어디론지 떠난다면, 그 사람을 그리워할 것이다.	1	2	3	4	5
8	가정 내에서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나는 가족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비판에 매우 예민하다.	1	2	3	4	5
1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은밀하게 즐긴다.	1	2	3	4	5
11	때때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한다.	1	2	3	4	5
12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을 때, 나는 상처받고 거부당한 느낌이 든다.	1	2	3	4	5
13	내가 누군가와 친해졌는데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아마도 나 자신을 미워할 것이다.	1	2	3	4	5
14	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15	나의 성생활(sex life)은 만족스럽다.	1	2	3	4	5
16	나는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되려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7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나는 그 관계를 지속하려고 한다.	1	2	3	4	5

18	나는 내 주위에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1	2	3	4	5
19	사람들을 내가 직접 볼 수 없다면, 그들은 내 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1	2	3	4	5
20	나는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1	2	3	4	5
21	나에게 깊은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1	2	3	4	5
22	내가 아무리 애써서 피하려 해도, 나에게 중요한 관계들에서 똑 같은 어려움이 나타난다.	1	2	3	4	5
23	나는 누군가와 완전히 일치하기를 갈망한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 사람과 항상 같아지지 않는다면 만족하지 못한다.	1	2	3	4	5
25	나는 사람들을 꽤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다.	1	2	3	4	5
26	나의 이성(異性) 관계는 항상 똑 같은 방식으로 끝이 난다.	1	2	3	4	5
27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자주 모욕하려고 한다.	1	2	3	4	5
28	나는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할 때, 보통 남들에게 의존한다.	1	2	3	4	5
29	나는 어느 누군가를 믿고 나서 대개 후회한다.	1	2	3	4	5
30	나는 친한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 툭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1	2	3	4	5
31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1	2	3	4	5
32	이성(異性)들이 내 주위에 있을 때, 나는 종종 초조함을 느낀다.	1	2	3	4	5
33	나는 소외당할까봐 종종 두려워한다.	1	2	3	4	5
34	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거부할지 모른다고 느낀다.	1	2	3	4	5
35	나는 몇 달씩 집밖에 나가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다.	1	2	3	4	5
36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까봐 신경을 쓴다.	1	2	3	4	5
37	친구 사귀는 일은 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1	2	3	4	5

38	나는 이성(異性)과 어떻게 만나는지 또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잘 모른다.	1	2	3	4	5
39	나와 친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 수 없을 때, 나는 상처받거나 화가 난다.	1	2	3	4	5
40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1	2	3	4	5
41	사람들은 결코 상대방에게 솔직하지 않다.	1	2	3	4	5
42	나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는다.	1	2	3	4	5
43	나는 이성(異性)들과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 수줍음을 탄다.	1	2	3	4	5
44	내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1	2	3	4	5
45	나는 좋은 어머니란 자기 자녀들을 항상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1	2	3	4	5

〈부록 4〉 ISS (수치심)

ISS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아주 그렇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1	2	3	4	5			
2	나는 어쩔지 내쳐진 느낌이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대체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스스로를 비웃고 자신을 알본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1	2	3	4	5			
7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기대(이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8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작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1	2	3	4	5			
9	나는 자부심이 강하다.	1	2	3	4	5			
10	나는 부적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다.	1	2	3	4	5			
11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간으로서 무너진 결함이 있는 것 같다.	1	2	3	4	5			
12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아주 무섭다.	1	2	3	4	5			
14	나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이 내 결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	1	2	3	4	5			

18	대체적으로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5
19	실수를 하면 나는 움츠러 드는 것 같다.	1	2	3	4	5
20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압도되고 만다.	1	2	3	4	5
21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는 가지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22	때로 내가 수천 조각으로 부서질 것 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23	나는 내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24	때로 나는 몽알처럼 아주 작게 느껴진다.	1	2	3	4	5
25	때로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을 때 땅이 열려 나를 삼켜버렸으면 좋겠다.	1	2	3	4	5
26	내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리가(소외감) 있다.	1	2	3	4	5
27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1	2	3	4	5
28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29	나의 외로움은 텅 빈 공허함과 같다.	1	2	3	4	5
30	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1	2	3	4	5

ABSTRACT

Selfobject Experience and Object relation
A level relationship
:Based on the numerical effects of shame

Lee, Min-Jeung

Major in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ung University

People are living in close relationships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Therefore, it becomes the most important and important support base of life and learning based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ohut's Selfpsychology explains that it is influenced by the level of object reprobation by its own infectivity. Therefore, we intend to conduct an empirical study on how the relevant experience relate to the object relation level currently associated with the object relation.

A survey of 200 parents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was conducted. To verify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The following confirmed differences in the selfobjection, object relation, and shame associated with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ident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selfobjection, object relation, and shame. Analysis of SEM (structural equations modeled) Shame of Macro-electrometric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bject Experience and object relation was analyzed. The following confirmed differences in the selfobjection, object relation, and shame associated with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ident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selfobjection, object relation, and sham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model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bject Experience and object relation was analyzed.

As a result, in the self-defection experience (3.5 ± 3.097), women ($3.79 \pm 1.5.7$) and collective self - ($3.79 \pm .70.320$) were investigated in the male ($3.42 \pm .65.320$) and similar ($3.43 \pm .69$) female ($3.43 \pm .69$). Similarly, It was analyzed that the gender of the self-defection was higher than the male ($3.24 \pm .2.923$) ($3.52 \pm .64$) of the male ($3.52 \pm .64$) and the female ($3.24 \pm .67$). It was analyzed that the gender of the self-defection was higher than the male ($3.24 \pm .2.923$) ($3.52 \pm .64$) of the male ($3.52 \pm .64$) and the female ($3.24 \pm .67$). At least 50 people in the lower scale of object retention are considered to have higher levels of alienation compared to their 30s.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selfobjection experience and the object relation level and shame indicate that the object relation level is high. Also, the whole of the selfobjection show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hame whole ($r = -.369$, $p < .01$). In other words, the subjects with high levels of selfobjection experienced low levels of shame levels. Object relation of subjects subject to study

Overall, the entire and the whole of the population was analyzed f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r = .600$, $p < .01$), and the subjects with low object retention levels were deemed to have high levels of shame.

Third,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was analyzed to verify that verific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architectural model and verification of the indirect effect of the verification and the verification of the indirect effects resulted in the failure of the object and the effect of shame.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selfobjection level, the lower the shame is reduced, and the lowered shame reame is lowered again.

This study demonstrated the correlation between object ownership and object relation, and was identified by shame. However, since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the competition area of Gyeonggi Province,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about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there may be limitations of parameter measurement to the questionnaire questionnaire. Also, studies and verification of various variables are needed as well as shame.